

# 민관 집단지성으로 산림정책 해법 찾는다

- 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회 발족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후위기로 대형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산림 경영과 산림보전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산림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산림청 임하수 차장과 한국환경회의 박형신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산림청과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3년간 운영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현안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상호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협의회를 통해 산림경영과 산림보전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림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산림을 둘러싼 현안은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협의회가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필요한 근거를 함께 확인하고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관호 (042-481-4130)
		담당자	사무관	이종수 (042-481-4135)